



## 리보(Libor) 산정방식 이원화 추진

이경아 연구원

■ 기준금리 조작 파문 이후 개선이 추진되어왔던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 Rate)에 대해 기존 방식과 실거래 지수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음.

- 2012년 Barclays, Royal Bank of Scotland, UBS 등은 리보금리 산정 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적발되어 영국 금융감독청(FSA),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
- 기존 리보금리는 주요 우량 은행들이 예상하는 단기금리의 평균값으로 실제 거래금리가 아니라는 점, 소수의 은행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조작의 여지가 있음.<sup>1)</sup>
- 반면, 실거래 지수 방식은 은행 간 실제 거래 금리를 근거로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임.

■ 기존 방식의 리보와 실거래 지수 방식을 병행하는 이원화 방안(dual track system)<sup>2)</sup>은 기준금리를 리보금리 대신 새로운 기준금리로 전면 대체하려던 기존의 논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임.

- 미국은 그 동안 기존 리보산정 방식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며 즉각적인 리보폐기를 주장해 왔음.
  - 미 상품선물위원회 Gensler 위원장은 “은행들끼리 정확한 금리를 산출할 만큼 충분한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기존 금리 체계의 폐기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즉각폐기 의사를 표명해왔음.
  - 미 연준 Bernanke 의장 역시 “리보는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의 신뢰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고 언급하였음.

1) 영국은행연합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매일 오전 11시에 18개 패널은행에 대해 차입 가능한 단기금리 수준에 대한 은행들의 추정 금리를 조사한 뒤, 이 중 상·하위 각각 4개 값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호가의 평균치를 고시(Wikipedia)

2) 벤치마크 금리를 이원화한 선례로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은행 간 금리(Mibor)가 있음. 스페인은 유로존 출범 이후 10년 넘게 유럽 은행 간 대출금리인 Euribor와 Mibor금리를 혼용하고 있음.

■ 반면, 영국은 이원화 방식이 기존 방식의 기준금리를 채택해온 시장참가자들에게 거래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

- 영국 금융당국은 규제 당국이 리보 폐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우선 두 가지 기준을 병행하다가 시장참가자들이 리보금리 폐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는 점진적 폐기의 입장을 나타내었음.
  - 영국 금융감독청 Wheatley 위원장은 “기준금리 결정의 문제는 옛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곧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
  - 아울러 기존에 영국은행연합회가 가졌던 리보 집계 권한을 이관 받을 금융감독청 산하의 기관 관리자도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익숙한 인물로 모색하겠다고 밝힘.

■ 리보는 현재 전 세계 금융거래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전에도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이유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음.

- 리보는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0조 달러의 대출상품, 350조 달러의 이자율스왑상품, 564조 달러 상당의 금리선물계약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어<sup>3)</sup>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장참가자 간 이해 상충이 큼.
- 실거래가 기준 방식이 보완될 경우 기존 방식대로 호가를 종합해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은행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가격 정보가 왜곡될 여지를 줄일 수 있고 가격 추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존 방식에 비해 기준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은행 간 금리 결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음.
- 그간 영국 금융감독청 주도로 기준금리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온 점과 Wheatley 위원장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인해 향후 리보금리는 전면적 대체보다는 기존의 추정호가 방식의 리보산정과 실거래를 근거로 산출된 실거래 지수 방식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the Financial Times 등)

3) 박성욱(2012), 「최근 리보 관련 스캔들의 배경과 시사점」, 금융연구원.